

후혁명 시대 문학 읽기*

— ‘386’과 ‘지청’ 작가의 세대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김남희**

<目 次>

1. 서론
2. 한국과 중국의 혁명세대와 세대의식
 - 1) 386세대와 80년대
 - 2) 지청세대와 70년대
3. 후혁명 문학의 차이 — 두 세대의 이야기
 - 1) 부모와 나
 - 2) 도시와 향촌
4. 결론

1. 서론

문화대혁명 종결 직후 중국에서 나타난 상흔문학(傷痕文學)을 “자신의 몸에 남겨진 고통의 흔적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 중얼거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말’”로 이해한 한 비평가는 그것을 “상처의 중얼거림이나 후유증에 해당하는 기억의 서사물”로서의 ‘운동권 후일담’과 함께 언급했다.¹⁾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문혁과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창작주체가 진행하는 ‘개인 기억의 역사화’라는 점에서 두 문학사조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일견 설득력이 있는 대비인 듯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2230).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1) 김보경, 「기억은 헤게모니의 욕망에 어떻게 호출되는가 — 후일담 문학과 ‘독학자’의 권력 욕망」, 『당대비평』 28, 2004년, 131-140쪽.

보이지만 두 문학사조는 공통점만큼이나 차이점도 뚜렷하다.

우선, 중국의 상흔문학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문혁의 '비인간적'이고 '봉건적'인 투쟁의 광풍 아래 직간접적으로 박해와 억압을 경험한 이들의 증언거림이다. 상흔문학 속의 인물들은 다양한 세대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혁 시기 발생한 가족, 이웃, 사제, 동료 등 다양한 관계의 왜곡 속에서 받은 상처를 토로하였고, 그 치유를 위한 대안은 이들 다양한 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인성'과 '인도주의'의 회복이 되었다. 반면 한국에서 1990년을 전후하여 나온 후일담문학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거나 경험한 이들이 창작주체이자 서사주체로 등장한다. 이들의 상흔은 투쟁 속에서 박해를 받은 아픔이라기보다는 개인을 희생하며 투쟁에 참여한 결과 현실사회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서글픔과 그러한 희생에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사회에 대한 허무와 절망이다. 말하자면, 중대한 역사적 사건(문혁과 민주화운동)을 겪은 후 그 사건이 남긴 아픔을 표현했다는 점은 같지만, 아픔의 주체와 성질에서 차이를 보인다. 상흔문학이 혁명이 다양한 주체에게 남긴 여러 양태의 상처에 대한 증언거림이라면, 후일담문학은 운동에 참여하여 유사한 경험을 한 특정 연령집단—소위 '386세대'의,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증언거림이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상흔문학이 지식인들의 문혁 트라우마를 공동의 기억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지식인 집단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문혁과 마오시대를 청산하고자 했던 새로운 정권의 정당성 획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양자 간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²⁾

문혁이 많은 상처를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문혁을 경험한 이들의 기억이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어떤 이는 삶에 대한 성찰을(巴金, 『隨想錄』), 어떤 이는 젊은 날의 고난과 방황을(張賢亮, 『綠化樹』), 또 어떤 이는 주체할 수 없는 자유의 팽창을(영화 『햇빛 쏟아지던 날들(陽光燦爛的日子)』)을 그려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위치나 정치 노선 외에도 삶의 어느 단계에서 문혁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세대에 따라 서로 다른

2) 이옥연,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의 중국문화』,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년, 11-46쪽 참조.

문학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이후 운동에 참여했던 386세대의 문학 창작과 대비한다면 중국에서는 지청세대의 문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샤오공(韓少功), 왕안이(王安憶), 아청(阿城), 장청즈(張承志) 등 지청작가들은 홍위병(紅衛兵), 상산하향 운동을 통해 문학에 참여하였고, 이들 세대만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의 기억과 사유방식을 공유하고 이를 문학으로 표현함으로써 80년대 문학 가운데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

80년대 중국 문학계의 신진역량으로 등장한 지청작가들의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이력과 사유로 인해, 이들은 작가 개인에 대한 연구 외에도 하나의 그룹으로서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지청을 소재로 한 텍스트 속에서 6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이르기 까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지청들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분석하거나,³⁾ 1980년대 중반 나타난 심근문학의 대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청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치지향의 변화를 고찰하기도 했다.⁴⁾ 지청을 하나의 세대로서 다루는 연구는 문학 외의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지청세대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중국 영화의 세대 구분에서 '5세대' 감독이 갖는 의미는 지청을 세대로서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⁵⁾ 특별히 언급한 만한 것은 2015년을 전후로 지청 경력이 있는 학자들의 은퇴가 갖는 의미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⁶⁾ 논문에서는 개방적이고 경험을 중시했던 학술 실천의 방식이 끝나고 학술체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와 학제 간 융합을 통해 포스트지청시대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이들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지청 세대는 문학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80년대 이후 문학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문학이 종결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문학 경험에 대한 서사가 쏟아져 나오고 상흔문학과 반사문학의 흐름이 형성되는 동안, 같은 시기 지청작가들이 발표한 작품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독특한 부분이 발견된다. 문학으로 받은 상처를 토로

3) 조혜영, 「지식청년 소재 글쓰기에 나타난 가치관 연구」, 『중어중문학』 34, 2004년 6월, 485-510쪽.

4) 이선옥, 「중국의 80년대 尋根文學 고찰」, 『중국현대문학』, 2004년 9월, 251-275쪽.

5) 임대근, 「중국영화 세대론 비판」, 『중국학연구』 31, 2005년 3월, 121-146쪽.

6) 頂綱, 「中國社會科學“知青時代”的終結」, 『文化縱橫』, 2015년 6기, 70-79쪽.

하고 새로운 시대—신시기를 맞이할 것을 다짐하는 상흔문학과 달리, 또한 민주화 운동 이후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후일담문학과도 달리, 지칭 작가들의 작품은 문혁의 경험에 대해 상당히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로 돌아온 이들은 낯설어진 환경과 자신들을 밀어내는 사회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가족을 원망하지 않는다. 역사의 피해자로서 분노하거나 비판하지도 않는다.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낯선 곳으로 가 소중한 청춘을 보내고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거나 도시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삶이 바뀌었다고 할 만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서사에 대해 “지칭작가들은 서구의 젊은이들이 전쟁을 증오하듯 상산하향운동을 증오하지도, 그 반동적 본질을 제대로 폭로하지도 않는다. 실망스러운 일이다”⁷⁾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 게다가 이러한 선택이 일시적인 향수가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80년대 중반 새로운 화두—‘뿌리찾기(尋根)’를 내놓았을 때, 그 사유의 근원에 향촌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향촌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나아가 중국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운동 이후 두 세대가 보여주는 상이한 서사는 과거를 대하는 태도이자 동시에 미래에 대한 상상과 연결된다. 이에 본 논문은 두 세대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 외에 창작주체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 이들이 각자의 경험을 문학으로 형상화하는 데 작동되었던 한 세대의 사유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대’의 문제를 진입점으로 삼아 역시 뚜렷한 세대적 특징을 가진 386세대와 대비함으로써 지칭세대 작가들의 사유체계가 형성되어온 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86세대와 지칭세대의 창작이 경험을 공유하는 한 세대의 서사로서 사회적 맥락과 더욱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작가들의 세대적 특성과 여기에서 비롯된 서사 방식을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지칭세대 작가들의 문학과 그 문학 속에 나타난 ‘심근’의 동인을 탐구하는 데 또 하나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7) 王安憶, 陳思和, 「兩個69屆初中生的即興對話」, 『上海文學』, 1988년 3기 중 천스허(陳思和)의 견해.

2. 한국과 중국의 혁명 세대와 세대의식

어떤 연령집단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고 이러한 “개인들의 전형적인 경험들을 공식화”⁸⁾함으로써 집단의 기본 태도와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이들을 ‘~ 세대’라고 명명하곤 한다. 인식의 이러한 집단적 성격에 주목한 것은 20세기 초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년기를 보낸, 이른바 ‘전선세대(Front Generation)’인 칼 만하임이었다. 그는 ‘폐쇄된 집단’, ‘집단정신’을 기초로 사유를 발전시키며 지식사회학의 윤곽을 잡았다. 특히 사회학적 관점에서 집단으로서의 세대를 고찰하는 세대론을 통해 세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에게 사고란 본질적으로 개인적 활동이 아닌 집단적, 사회적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각 개인의 개별적 행위라기보다는 집단 사유에 대한 참여이자 공모이며, 개인의 역사 속에서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 되고 나아가 한 세대의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내 육체적 나이는 늙었지만, 내 정신의 나이는 언제나 1960년의 18세에 멈춰 있었다. 나는 거의 언제나 사일구세대로서 사유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 내 나이는 1960년 이후 한 살도 더 먹지 않았다.”⁹⁾라고 한 어느 지식인의 다소 단정적인 정신사적 규정은 개인을 넘어 한 세대가 공유하는, 그럼으로써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강렬한 세대감각을 보여준다. 이것은 비단 ‘사일구’라는 사건에 대한 기억의 공유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형성되고 드러나는 기본 태도로서의 사유·분석·해석 방식의 공유를 포함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중국의 문혁이라는 전형적인 경험과 그 속에서 형성된 집단사유, 그리고 이것이 문학 창작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1) 386세대와 80년대

이른바 ‘386세대’는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이

8) 칼 만하임 저, 이남석 옮김, 『세대 문제』, 서울, 책세상, 2013년, 73쪽.

9) 김현, 『분석과 해석』,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년, 4쪽.

용어가 등장한 1990년대에 당시 연령으로는 30대, 대학 입학연도로는 80년대 학번, 출생연도로는 60년대 생인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 386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한 이 용어는, 이 세대를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숫자의 조합에 교묘하게 끼워 맞춰진 개념인 만큼 엄밀하게 숫자에 의해 구별되기보다는 공통의 경험을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하임이 제시한 ‘실체세대’¹⁰⁾의 개념을 빌려 설명하자면 “1980년 광주항쟁에서부터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프레임을 이 시기에 대학생활을 하면서 공유했던 집단”¹¹⁾이라고 할 수 있다.

386세대 모두가 80년대의 운동에 참여하고 동일한 지향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문학을 창작하는 주체의 감수성이라면 이러한 뚜렷한 시대적 특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민주화운동으로 이끌어낸 대통령직선제가 야당의 패배로 끝나고 뒤이어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구권이 해체된 후 ‘세계화’의 화두 아래 대중소비문화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80년대의 투쟁을 기억하는 작가들은 “혁명도 사랑도 진부해졌”음에 대한 허무와 “잔치는 끝났다”는 식의 자조를 숨기지 않았다.¹²⁾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어떤 사건에 대한 후기(後記)와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후일담문학은 서술은 제각기 다를지라도 모두 80년대의 기억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

이젠 그런 것은 없어. 혁명, 변혁, 운동…… 그런 건 모두 낡은 낱말에 불과해. 우리도 이젠 시선을 돌려야 해. 알겠니? 시선을 말이야. 우린 이렇게 변한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갈 뿐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움인지도 몰라.¹³⁾

당시 동창들은 모일 때마다, 그 때 그들이 그려냈을 풍경을 화제로 삼곤 했다. 그때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 쓴 것을 한 움큼 삼킨 듯한 표정이

10) 카를 만하임 저, 이남석 옮김, 『세대 문제』, 서울, 책세상, 2013년, 64-67쪽.

11) 조대엽, 「한국의 사회운동세대, 386」, 『계간 사상』, 2002년 9월, 125-147쪽.

12)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년.

13) 김영현, 『등 꽃』,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5년, 111쪽. 김영현의 경우 386세대라고 하기에는 출생 시기가 조금 앞서 있으나 본문에서 지적한 바, 작가의 이력과 창작 경향 등에 있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논의에 포함시킨다.

었다. 우리들에게 지나갔던 것, 지나갔다고 믿었던 것이 갑자기 쓰디쓴 알약이 되어서 목젢에 걸렸다.¹⁴⁾

우리들은 말이야, 우리들은 저 팔십년대를 결국에라도 말이야, 벗어날 수 있을까.¹⁵⁾

그것이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우리'의 현재는 80년대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러한 감수성은 이들을 '세대'로 묶어주는 연결고리이자 동시에 이들을 묶어내는 족쇄이기도 했다.

거대한 정치사회적 사건이 지나간 후에 남은 상처를 돌아본 것이 후일담문학이라면, 변화된 세계와 달라진 환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 '신세대문학'이다. '신세대문학'이라는 명칭에서도 보이듯, '세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창작주체와 성격의 구체적 범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¹⁶⁾ 그 가운데에서도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새롭다(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움이 시작되고 그것을 판단하는 준거점 역시 80년대에 있었다.

대학 시절 나는 국악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민족의 주체성을 특히 강조하는 운동이념에 동조했었다. 그러나 역사와 시대와 민족 등의 개념들은 이미 90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서 떠나버렸다. 역사와 민족 등이 90년대의 인간에게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역사와 민족 등의 범주를 동시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틀로 규정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80대를 풍미하던 역사와 민족 등이 빠져

14) 김인숙, 「숨은 샘」, 『그 여자의 자서전』, 파주, 창비, 2005년, 47-48쪽.

15) 공지영,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 파주, 창비, 2006년, 103쪽.

16) '신세대문학'에 대한 권성우의 정리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80년대의 문학적 경향과 상반되는 작품을 쓰는 60년대 이후 출생 작가의 성과'를 일컫지만, 보다 넓게 본다면 '90년대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는 젊은 작가들의 성과'를 포괄할 수 있다. 권성우, 「다시, 신세대문학이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 1995년 봄(3월)호(통권87호), 265-280쪽 참조. 이러한 표면적 조건 외에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80년대의 이념 지향적 경향과 구별되는 '육망의 표현'이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종합하자면 '60년대 전후 출생한 젊은 작가들이 써 내는 탈이념적, 탈정치적 작품 경향을 포괄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김남석, 「아직도, '신세대문학'은 살아있다」, 작가와비평 편,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서울, 여름언덕, 2005년, 103-129쪽 참조.

나간 상태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며, 때문에 후일담 문학이나 리얼리즘 소설을 부정하는 자리를 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¹⁷⁾

90년대의 다양해진 삶의 양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의식을 담아내기 위해서 작가들은 80년대의 이념 지향적 문화에 반대하거나, 혹은 반대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표현 방식을 추구했고, 이들의 '새로움'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었던 문학계는 '신세대문학'이라는 다소 모호한 명칭으로 그것을 갈음했다. 90년대, 다시금 주체를 추슬러 세우려는 과정에서 후일담문학이 80년대를 자꾸만 곱씹고 있다면, 신세대문학은 그것과의 강력한 단절의 욕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두 사조 모두 80년대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2) 지칭세대와 70년대

386세대에게 있어 90년대가 80년대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중국의 80년대는 “많은 이의 70년대를 볼 수 있”¹⁸⁾는 시기였다. ‘발란반정’을 시작으로 70년대 말부터 일어난 많은 일들이 지난 10년간의 ‘재난’에 대한 회고나 부정, 단절을 위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창작주체의 관점에서 386세대의 투쟁과 참여(소극적인 연루를 포함하여)와 같은 집단적 경험과 기억에 주목한다면, ‘문학’이라는 중국현대사의 중대한 정치운동에 참여했던 세대로서 지칭작가들 역시 유사한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 출생하여 문학 기간 상산하향이 시작된 1968년에는 중고등학생이었다. 문학이 시작되자 홍위병으로 문학에 참여했다가 상산하향 운동 아래 하방(下放)되어 향촌생활을 경험했다. “70년대 성장하였고 연령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광풍이 몰아치는 두 시대 사이의 짧은 10년 간 자신의 소년, 혹은 청년 시기를 보내”¹⁹⁾면서, 이들

17) 류보선, 「죽음, 그 아름답고도 불길한 유혹」,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중 작가 인터뷰, 서울, 문학동네, 1996년, 170쪽.

18) 查建英편, 『八十年代: 訪談錄』,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6년, 16쪽, 작가 아청 인터뷰 중 아청의 견해.

19) 李陀, 「序言」, 北島, 李陀 편, 『七十年代』,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9년, 8쪽.

의 가치관과 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문학이 종결되고 도시로 돌아온 이들은 급격히 변화된 현실에 직면했다. '현대 화건설'을 외치는 현실에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 않았고 "돌아와 보니 어느새 모두 노총각 노처녀가 되어 있어서, 호르몬 과잉인 상태로 길거리를 하염 없이 배회"²⁰⁾ 했다. 이들의 방황과 상실감은 창작에도 반영되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이들은 주로 지칭을 등장시키는 자기서술 형식을 통해 상산하향을 경험한 지칭 세대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토로함으로써 80년대 문학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지칭 출신 작가들의 초기 작품이 향촌에 대한 다소 감상적인 회고였다면 1985년 등장한 '심근선언'은 일종의 담론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한샤오공이 1985년 발표한 「문학의 뿌리」를 통해 "문학은 뿌리가 있으며 문학의 뿌리는 민족 전통문화의 토양에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²¹⁾는 주장을 내놓았을 때, 그가 상상하는 '민족의 전통문화'는 향촌생활을 통해 목도한 것이었다.

작가들은 주택문제, 특권문제를 썼고 여러 가지 불평과 흥분을 썼지만 이제서 이들의 시선이 보다 깊은 차원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현실에 발 딛고 서있는 동시에 현실을 초월함으로써 민족의 발전과 인류의 생존을 결정하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은 곧 향토(鄕土)에 주목했다. 향토는 도시의 과거이고 민족역사의 박물관이다. 농가의 들보 하나, 마룻대 하나, 처마나 서까래 한 귀퉁이에조차 한(漢)위(魏) 혹은 당(唐)송(宋)의 그림자가 남아있다.²²⁾

이들이 보기에 현실의 어느 한 부분을 비판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시류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작가로서 당연히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창작을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더 긴 안목으로 통찰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러한 '초월'의

20) 원테켄 저, 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 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파주, 돌베개, 2013년, 85쪽.

21) 韓少功, 「文學的根」, 『作家』, 1985년 4기, 韓少功, 『在後臺的後臺』,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8년, 273쪽에 수록.

22) 韓少功, 「文學的根」, 『作家』, 1985년 4기, 韓少功, 『在後臺的後臺』,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8년, 276쪽.

가능성을 발견한 곳이 바로 향촌이었다. 다만 그곳에서 이들이 본 것은 단순한 ‘옛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살아남아 있는 것이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거대한 역사적,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현실에 스며있는 일상이었다. 이러한 일상의 배후에 있는 무의식을 그려내는 일이야말로 ‘현실에 발 딛고 서있는 동시에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근대 이후 중국은 전쟁과 혁명, 정치운동 속에서 많은 것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세대 속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했다. 짧은 호흡에 휘말려 숨 가뻐던 청년들이 향촌의 일상 속에 남아있는 전통문화의 긴 호흡을 느낀 것은 심근문학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들이 경험한 이 ‘사건’이 단순한 초기 작품에서 드러난 향촌에 대한 향수를 벗어나 학술적 언어와 담론의 형식을 빌려 하나의 ‘운동’ 형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객관적 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말하자면 이들이 점차 80년대 중국 사회 시스템 내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1982년을 전후로, 상황이 달라졌다. 문혁 이후 처음으로 대입시험(高考)에 참가한 지청들이 졸업을 한 것이다…… 지청 가운데 일부 뛰어난 이들은 성공적으로 사회의 새로운 체제로 진입해 제대로 된 지위를 얻었다. 그들은 이제 실어증을 극복하고 담론권을 얻어낸 것이다. 더는 다른 이를 대신할 필요 없이 ‘우리 세대’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낼 시대가 왔다. 그들이 일찍부터 꿈꾸던 일이었다.²³⁾

실어증에서 벗어난 이들은 막연한 감성으로 그려왔던 향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향촌, 나아가 중국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이데올로기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정치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찾고자 했고, 그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문화’였다. 인용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우리 세대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었다면 이들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소설 외에도 시, 미술,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터져 나온 실험의 중심에 이들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모든 문화토

23) 陳建新, 「話語的力量—論當代文學中的知青作家」, 『文藝爭鳴』, 2004년 5기.

론이 그 시작은 ‘심근문학’과 관련이 있었다.”²⁴⁾고 할 만큼, ‘심근’이라는 주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다.

3. 후혁명 문학의 차이 — 두 세대의 이야기

1) 부모와 나

386세대는 1960년대 ‘조국근대화’의 경제적 성과의 첫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부모 세대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딘 내핍과 초인적인 노동과 지칠 줄 모르는 교육열”²⁵⁾까지 더해져 교육수준도 높아졌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한 고학력 자녀 세대가 보기에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공포와 가난 속에 생존을 지상목표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며 살아온 부모 세대의 사고방식과 행동윤리는 군부독재가 요구하는 전체주의적 가치관에 충실히 호응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인습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부모와 달리 이념적 가치를 추구하며 “왜?라고 묻는 세대”²⁶⁾의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부모 세대와의 대립을 초래했다. 부모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올바르게 생각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부모와 기존의 질서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는 묻지 않았다. 그것은 ‘왜’가 들어간 말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에 가기 위해 사지선다형의 문제를 잘 맞춰야 하는 마당에 ‘왜’자가 무슨 소용일까. 우리가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도 않는 그들이 아닌가. 그것 또한 ‘왜’자가 들어간 말이니까 말이다.²⁷⁾

24) 查建英편, 『八十年代: 訪談錄』,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6년, 213쪽, 간양(甘陽) 인터뷰 참조.

25) 박완서, 「60대—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 『역사비평』, 1996년 2월, 175-181쪽.

26) 이상호, 「30대—민주화투쟁과 사회운동의 견인차」, 『역사비평』, 1996년 2월, 163-169쪽.

27) 공지영, 「광기의 역사」,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파주, 창비, 1999년, 53쪽.

집안 망해먹을 년이라 하고 가관도 눈이 서서 못 볼 가관이라고 하면서
어린 손녀의 턱 앞으로 종주먹까지 들이밀어대는 할아버지의 서슬 퍼런
노기에도 희영은 독할 정도로 무심했다.²⁸⁾

기성세대에 대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었)던 386세대는 80년
대 치열한 운동을 전개했음에도 과거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질서 위에서 빠르게
자본주의화, 개인화되어 가는 90년대의 환경에 의해 무장해제당하는 처지에 놓였
다. 이상과 이념 속에서 “빛나던 사람” (공지영, 「무엇을 할 것인가」)들은 빛을 잃
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에 의지하거나 타인의 동정과
무시를 동시에 견뎌야 하는 낙오자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 이들
역시 “고꾸라진 희생자들을 두고 혼자 달려 나와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와버린” (공
지영, 「인간에 대한 예의」) 듯한 자괴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목표는 사라지고
연대도 깨어지고, 부모세대가 만들어놓은 부조리한 질서 역시 무너뜨리지 못한 채
표류하거나 그 안으로 편입해 들어간 개인들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반면 지청 세대에게 있어 부모는 ‘행운의 세대’였다. 혁명을 경험한 그들의 권위
는 선망의 대상이자 본보기였다. 신중국 건립 이후 가정은 공과 사의 구분에 따라
존재하는 사적 존재가 아니라 ‘단위’(單位)에 따라 배치되고 작동되며 다음 세대
혁명후계자를 양성하는 공적 공간의 연장이 되었다.²⁹⁾ “사회주의의 새사람이 만
들어지는 시대”³⁰⁾에 성장한 지청세대는 문혁이 시작되자 “사회주의 혁명의 아
들”³¹⁾로서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들의 목표는 신중국 건립이라는 혁명을 완수한
부모 세대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었다.

가정과 사회의 구조와 질서에 있어 부권에 대한 선망과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28) 김인숙, 「강」, 『당신』, 서울, 솔출판사, 1996년, 77쪽.

29) 1960년대 상연된 연극 『千萬不要忘記』는 무대의 배치와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노동자
가정 내에서의 공간적, 계급적 위계질서를 보여준다. 자세한 분석은 당사오빙(唐小兵)의
연구서 『再解讀』,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년에 실린 글 「千萬不要忘記」의歷史疑義—
關於日常生活的焦慮及其現代性」 참조.

30) 張抗抗, 「讓它生長—關於「夏」的寫作」, 彭華生, 錢光培編, 『新時期作家談創作』, 北京, 人民文
學出版社, 1983년, 70쪽.

31) 頂錕, 「中國社會科學“知青時代”的終結」, 『文化縱橫』, 2015년 06기.

욕망이 공존했다는 점에서 지칭세대는 부모세대의 가치관을 회의하고 그것에 저항했던 386세대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60년대 중국의 젊은이들이 ‘조반유리(造反有理)’의 구호 아래 홍위병운동에 참여한 것은 분명 ‘살부(弑父)’ 행위였지만, 그것은 부모 세대가 만든 질서를 회의해서라기보다 자신들도 그와 같은, 나아가 그것을 뛰어넘는 질서를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혁명은 먼저 아버지의 신화를 쓰러뜨려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 혁명 신화의 용맹무쌍한 영웅이었다. 홍위병운동이 이러한 신화를 재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명을 통해 영웅/아버지를 적으로 재명명해야만 했다.³²⁾

이러한 홍위병들에게 문학과 상산하향운동은 조국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혁명의 연속이자 마침내 자신들에게 돌아온 혁명의 기회였다. 기층생활과 독서, 학습을 통해 지칭들은 부모 세대가 혁명을 거치며 느꼈을 성취감과 숭고함을 어느 정도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 때문에 도시로 돌아온 작품 속의 지칭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칠 때마다 자신들이 떠나온 향촌을 떠올린다. 이들에게 향촌에서의 경험은 고난과 희생 끝에 거두어낸 승리(梁曉聲, 「這是一片神奇的土地」)였기에, 이들은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고(孔捷生, 「南方的岸」의 暮珍), 자유로운 의지로 남들과는 다른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곳(「南方的岸」의 易杰),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을 목적지(王安憶, 「本次列車終點」의 陳信)인 향촌으로 돌아간다.³³⁾

이러한 향촌 서사는 도시 생활의 부적응에서 오는 감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32) 戴錦華, 『霧中風景: 中國電影1978~1998』,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27쪽.

33) 본문에서 인용한 지칭 작가들의 작품 정보와 인용 출처는 다음과 같다. 王安憶, 「本次列車終點」, 『上海文學』, 1981년 10기. 梁曉聲, 「這是一片神奇的土地」, 『北方文學』, 1982년 8기. 唐達成 編, 『中國新文藝大系1976~1982 短篇小說集(下卷)』,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1986년에 수록. 孔捷生, 「南方的岸」, 『十月』, 1982년 2기. 路遙, 「人生」, 『收穫』 1982년 3기. 江曉天 編, 『中國新文藝大系1976~1982 中篇小說集(下卷)』,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1985년에 수록. 史鐵生, 「我的遙遠的清平灣」, 『青年文學』 1983년 1기. 人民文學出版社編輯部 編, 『豐盈的激情1976~1984(下)』,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9년에 수록.

향촌 서사가 일시적인 향수에 그치지 않고 이후 '심근'이라고 하는 이들 세대를 대표할 만한 정신적 기반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이들이 가진 민감한 세대의식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했던 이들의 사유에는 자기들만의 경험으로부터 뺏아들인 자양분을 '남겨주는 것'을 전제로 한 고민도 내재되어 있었다.

지난 10년을 그냥 헛고생으로 만들 거야? 사람들에게 뭔가 남겨줘야 할 것 아냐!³⁴⁾

'계승'으로부터 '전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작품은, 그렇기 때문에 상처의 토로에 그치지 않고 줄곧 모종의 "당혹스러움과 어떠한 모색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초조함"³⁵⁾을 보여준다. 「南方的岸」의 지청 이지예(易杰)와 은사 마이(麥) 선생님, 마이 선생님의 딸(의붓딸) 샤오팅(小汀)의 관계에서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난다. 지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지예는 습작을 할 때마다 옛 은사 마이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지만, 이지예와 딸 샤오팅 앞에서 마이 선생님은 더 이상 학교에서 누구보다 빛나던 교육자가 아니다. 오히려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샤오팅이 이지예의 관심을 끈다. 하방되던 날과 마찬가지로 마이 선생님의 배웅 속에 다시 하이난(海南)으로 돌아가며 이지예는 그동안 정신적으로 의지해 왔던 선생님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우리의 사제 관계는 이미 끝이 났다. 그녀는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가르쳐주었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의 길에서 교육을 받을 것이다. 만일 성공한다면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곧 이 대열에 속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새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다. 사람들이 편견을 갖지만 앓는다면, 시대정신의 변혁은 언제나 젊은이들에게서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미래는 그들의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³⁶⁾

34) 王安憶, 『流逝』, 樊星, 「知青文化論 — 中國知青上山下鄉三十周年祭」, 『文藝評論』, 1998년 6기에서 재인용.

35) 洪子誠, 『中國當代文學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0년, 339쪽.

자기가 쓴 글에 확신이 없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던 이지에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의 몫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의 방황과 모색은 자신이 하방되었던 하이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듯하지만, 이것은 '돌아감'과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으로의 '출발'이기도 하다. 지칭작가들의 이러한 선택과 그 근거가 되는 사유는 역사에 대한 낙관에서 비롯된다.

나는 언젠가 공정하고 깊이 있는 인식이 우리를 총결지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 때가 되면 우리 세대만의 분투, 사색, 낙인과 선택이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보였던 유치함, 실수 그리고 한계로 인해 후회할 것이며 이것을 다시 할 수 없음을 한탄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깊은 비관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드넓은 국토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가에 있어 앞날은 결국 밝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체에는 혈통이 있고 물과 땅이 있고 창조적 역량이 있어, 힘차고 건장한 신생아들이 태어나 병들고 연약한 신음소리를 그들의 환호성으로 물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³⁷⁾

지칭작가들은 향촌과 중국의 전통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할 것을 '선언'했다. 다소 감상적인 향수에서 심근선언으로 이어지는 향수에 대한 이들의 일관된 시각은 단순한 지칭 출신들의 정치적 정당화 혹은 지위 회복 이라기보다 전통과 향촌에 대한 재해석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세대가 참여했던 모든 행위에 대한 총결은 미래의 어느 세대에 맡겨둔다. 이것은 자신들의 몫이 아니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을 총결해줄 미래의 세대는 지금보다 나은 모습일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그것을 남겨주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 '현실에 발 딛고 서있는 동시에 현실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문화적 기획 안에 계승자이자 전수자로

36) 孔捷生, 『南方的岸』, 『十月』 1982년 2기, 江曉天 편, 『中國新文藝大系1976~1982 中篇小說集(下卷)』,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1985년, 307쪽.

37) 張承志, 『北方的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6년.

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치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기획은 당대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다음 세대를 낙관하듯 역사를 낙관했다. 그리고 혁명의 경험을 전수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2) 도시와 향촌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혁명 세대에게 있어 '도시'와 '향촌'이라는 공간이 갖는 서로 다른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지식인 등 교육받은 중산층과 노동자가 참여한 운동이었다. 386세대와 연결되는 다양한 이미지—시위와 최루탄, 민중문화운동, 노동현장에서의 실천 등은 대부분 도시공간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또한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문혁에 호응하여 마오쩌둥을 열렬히 지지했던 '지청' 역시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당시 중국의 맥락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각각 교육을 받은 장소인 '도시'는 두 사회에서 서로 다른 기의를 가지고 있었다.

386세대에게 있어 가장 큰 인생의 전환은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도시의 대학에서 이들은 비로소 탈권위, 탈인습적 가치관을 획득해갔다. 기성세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유지해온 가치지향을 재검토할 수 있었고 또 기꺼이 하고자 했다. 특히 냉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대치하며 제도적, 이념적으로 거시적인 억압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성적으로 예민했던 이들은 기존 질서에 분능적인 반감을 느끼고, 강하게 저항했다.

태어난 이래 대통령의 이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나라에서 자란 내게 대학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곳이었다. 거기엔 이미 유신시대의 암울한 평화(인용자 강조)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것이다.³⁸⁾

상대적으로 개방된 대학에서의 학습과 토론은 권위적인 군부독재 환경 속에서

38) 공지영, 「작가의 말」, 『인간에 대한 예의』, 파주, 창비, 2006년, 367쪽.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며 자란 이들이 그 동안 배워온 획일적인 교육 내용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 배후에 은폐되어 있던 그들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평화'의 뒷면을 들여다보고 파헤치는 것 자체가 괴로운 투쟁이었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강한 자각이 있었다. 386세대의 이러한 회의와 갈등, 저항은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시작되어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도시는 이들에게 있어 각성과 투쟁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도시는 소비와 문화생활의 공간이 되었고 과거와는 또 다른 평화가 투쟁의 공간을 차지했다.

인마, 너 시궁창에 빠져본 일 있냐? 난 있다. 물이 생각보다 뜨듯하데.
 그 기분 너는 모를 거다. 더는 더러워질 수 없는 느낌, 더는 모욕당할 수 없는 평화(인용자 강조)..... 그건 좋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말 우리는 시작하는 거야.³⁹⁾

과거의 평화가 억압에서 오는 침묵의 평화였다면, 90년대의 평화는 물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평화였다. 후일담문학이 90년대 도시의 '평화'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이, 신세대문학은 도시가 분출하는 새로운 자원을 마음껏 흡수했다. 80년대 후반부터 비대화된 문화 산업과 정보의 증대, 미디어의 발달 등 변화 속에 등장한 신세대문학은 탈정치화된 90년대의 가벼움, 개인화, 일상성, 세속화를 표현했다. 아파트, 영화, 컴퓨터, 지하철과 같은 문화코드 속에서 도시의 개인이 느끼는 찰나성과 우연성을 통해 탈정치화된 90년대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도시로 이사와서 당신은 안도했다. 밤길을 위협하던 거대한 나무들은 사라졌다. 그악스럽게 대지를 움켜쥔 뿌리들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좋았다. 도시엔 앙상한 버드나무와 은행나무들만 있었고 그나마도 봄만 되면 가지치기를 당했다. 잘 정비된 포도와 신호등, 횡단보도에 둘러싸여, 바야흐로 어린 당신은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고 당신은 전자오락과 담배와 자동차 운전을 배웠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다가가는 기술을 습득했다. 여권과 신용 카드를 만들었고 떠나간 사람을 잊었다.

39) 공지영, 「꿈」, 『인간에 대한 예의』, 파주, 창비, 2006년, 38쪽.

삐삐를 샀다가 삼 년 만에 해지했고, 핸드폰을 사서 아는 전화번호를 모조리 단축 번호로 만들어 저장했다. 그러는 사이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⁴⁰⁾

이념과 정치로부터 벗어나기로 한 바에야, 대지 아래에 촘촘히 얽혀있는 뿌리를 의식하는 것은 짐스러운 일이었다. 도시의 익명성 속에 과묵하였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얻을 수 있는 현대인의 삶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이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컴퓨터, 자동차에 대한 욕망, 삐삐와 핸드폰을 이용한 새로운 소통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했다. 도시(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호들이 일상을 채우는 동안, 문제 의식과 서사의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386세대 작가들의 시선과 관심은 줄곧 도시와 도시생활의 변화에 머물렀다.

반면 지칭의 인식의 전환은 향촌에서 이루어졌다. 지칭들이 마오의 지시에 따라 '농촌에서의 재교육'을 위해 보내졌을 때, 도시는 언제나 문화적, 사상적 부패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지식청년들이 농촌으로 가 빈농과 중하층 농부에게 재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⁴¹⁾이었다. 이것은 혁명적 발전의 올바른 방향이 "사회적·문화적 창조력의 진정한 보고인 농촌을 중심으로"⁴²⁾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오의 신념에 따른 것이자 어느 정도는 "농민과 농촌에 대한 이상화"⁴³⁾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상화에 지칭세대가 처음부터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향촌에 도착한 이후 '중국을 다시 알게 되었다'는 자각과 함께 '그 동안 우리가 중국(향촌)을 얼마나 알고 있었던가'라는 문제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산시(山西) 친현(沁縣)의 리자거우(李家溝)라는 마을에 와서야 나는

40) 김영하, 「당신의 나무」,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년, 242쪽.

41) 1968년12월22일 『人民日報』의 편집자가 인용한 마오의 지시 “知識青年到農村去接受貧下中農的再教育, 很有必要”.

42) 모리스 마이스너 저,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2』, 서울, 이산, 2004년, 436쪽.

43) 錢理群, 『毛澤東時代和後毛澤東時代(1949-2009) — 另一種歷史書寫(下)』, 臺北, 聯經, 2012년, 116쪽.

중국이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제야 나는 우리 중국의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다.”⁴⁴⁾

이질적인 공간에서의 경험은 이들에게 이중의 의의가 있었다. 한 가지는 지청들과 농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실감한 것이다. “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할 줄 몰랐고, 내가 아는 것은 그들이 배우기를 원치 않”⁴⁵⁾는 상황에서 이들은 도시에서 내몰리고 향촌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노동자도, 농민도, 군인도, 학생도 아닌 특수한 계층”⁴⁶⁾으로서 우월감과 자괴감을 동시에 느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문화신분의 분열 속에서 어찌되었든 맞닥뜨린 기층의 삶에 대한 인식이었다. 향촌생활은 이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직관적 감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지청 세대의 사유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 상산하향이 혁명과 조반의 열기에서 빠져나온 젊은이들이 또 다른 ‘중국’에 발을 붙임으로써 현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 세대 젊은(?) 작가들은 역사가 정해준 바에 따라 고된 기층의 삶을 체험했다. 이러한 경험에서 형성된 인민의식과 자유의식이, 어찌면 자신의 문학적 심미관과 판단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⁴⁷⁾

이렇게 ‘우리’로서 살아온 지청은 현실인식에 있어서도, 심미와 감성에 있어서도 향촌을 진정한 ‘중국’의 모습으로 상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촌에서 병을 얻은 자신을 돌봐주던 노인, 함께 돌보던 소들을 떠올리고(史鐵生, 「我的遙遠的清平灣」) 빠르게 도시생활에 적응해가는 다른 지청들의 모습을 낫설어 하는(孔捷生,

44) 盧叔寧, 「劫灰殘書自序」, 『劫灰殘書』,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0년, 2쪽. 錢理群, 『毛澤東時代和後毛澤東時代(1949-2009) — 另一種歷史書寫(下)』, 臺北, 聯經, 2012년, 117쪽에서 재인용.

45) 韓少功, 「漫長的假期」, 北島, 李陀 編, 『七十年代』,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9년, 577쪽.

46) 任毅, 「一首知青歌, 九年鐵窓味」, 『海南記實』 1989년 7기. 樊星, 「“知青族”的旗幟 — “當代思想史”片斷」, 『當代作家評論』 1995년 6기에서 재인용.

47) 張承志, 「美文的沙漠」, 『文學評論』 1985년 6기.

「南方的岸」) 방식으로 가족과 같은 향촌의 모습을 상상한다. 결국 이들에게 진정한 귀속감을 줄 수 있는 종착역은 인생의 사랑이 묻혀있는 곳(「南方的岸」)이자 진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향촌이었다(王安憶, 「本次列車終點」).

지청작가들의 초기 작품에서 향촌이 이상적인 공간으로 존재해왔고 이것이 문화적 콘텍스트 속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면,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사회변화에 따라 향촌의 문화적 기의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특히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혁명이데올로기가 향촌을 이상화했다면, 현대화이데올로기의 이상은 도시에 있었다. 작품 속 향촌 청년 가오지아린(高加林)⁴⁸⁾의 도시 진출 분투기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는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을 맺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많은 젊은 독자들이 가오지아린을 위해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는 또다시 도시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⁴⁹⁾ 도시가 물질적, 정신적 생산력의 중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문학이 향촌을 진실한 사랑(巧珍)과 가족 같은 이웃(德順老漢)이 있는 순수의 공간으로 그려내고 그것을 중국이 선택해야 하는 가치로 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가오지아린의 귀향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음에도 독자들에게는 향촌 청년의 ‘실패’로 받아들여졌다.

향촌에 대한 이상화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짧은 향촌 경험을 했을 뿐인 지청작가들의 향촌 서사 역시 벽에 부딪혔다. 애초에 이들이 반영할 수 있는 향촌생활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지청 작가 아청은 농촌 출신 작가 자이핑와(賈平凹)와의 대화를 통해 그러한 한계를 절감한다.

.....“지청들이야 편했지요.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걱정해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안쓰러워해줘, 게다가 도시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이 있고 물러설 곳이 있잖아요. 생활이 고생스러웠다고 해도, 농민들은 대대손손 그렇게 고생을 했는걸요.” 자이핑와의 말에 나는 스스로를 반성했다. 나는 세속적인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속물이었음을 깨달았다.

48) 路遙, 「人生」, 『收穫』 1982년 3기, 江曉天편, 『中國新文藝大系1976~1982 中篇小說集(下卷)』,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1985년, 405쪽.

49) 尹昌龍, 『1985: 延伸與轉折』,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8년, 14쪽.

이때부터 나는 지칭이 아닌 인생을 쓰겠노라 굳게 마음먹었다.⁵⁰⁾

‘지칭이 아닌 인생을 쓰는 것’은 중국 당대를 넘어 인류 보편의 주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했다. 상흔, 반사문학이 짧게는 문혁, 길게 봐야 중국 당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문학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중국은 물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세계와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도시의 과거’이자 ‘역사의 박물관’인 향촌의 일상에 ‘살아남아 있는 것’들로부터 현실을 초월하는 무의식을 발견했던 지칭작가들의 사유 속에서 중국의 과거/현재, 전통/현대로 상상되었던 향촌과 도시는 다시 공간적 의미로 치환되고 나아가 중국/세계로 확장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심근’은 글로벌화의 압력이 더해가는 현실의 산물”⁵¹⁾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향촌에서 ‘또 하나의 중국’, ‘중국의 다른 면모’를 보았다는 이들의 자신감이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향촌을 함부로 이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반성도 있었다. 중국의 전통(향촌)을 봉건적이고 우매하다고 비판하거나 순수한 공간으로 이상화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도시와 향촌을 모두 경험한 자신들이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심근은 시공간적 매개자로서 이들이 추구했던 혁명의 계승이자 다른 차원의 ‘문화혁명’이었다.

4. 결론

386세대와 지칭세대는 각각 한국과 중국의 현대정치사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긴 세대이다. 이들 세대의 문학은 사회현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바,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에 대한 폭넓은 분석이 요구된다. 우선 이들 지칭세대와 한국의 386세대는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50) 阿城, 「一些話」, 『中篇小說選刊』 1984년 6기, 尹昌龍, 『1985: 延伸與轉折』,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8년, 62쪽에서 재인용.

51) 韓少功, 「尋根群體的條件」, 『上海文化』 2009년 5기.

바탕으로 한 문학 창작을 통해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386세대의 80년대와 지청의 60~70년대는 “‘나라는 개인들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의 시대”였다.⁵²⁾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운동(혁명)이 끝났을 때, 낭만적 열정이 가능했던 연대가 동시에 품고 있던 폭력적 동일성은 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변화와 대면하여 386세대의 문학은 허무와 비관의 정서가 지배적인 후일담문학을 통해 80년대를 회고하거나, 급속한 세계화 추세 아래 다양해진 소비주의 문화를 반영하는 신세대문학으로 90년대에 적응했다. 반면 지청 세대의 문학은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의 변화에 비관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한국의 문학은 물론 문학의 아픔을 토로하는 상흔문학과도 달리, 문학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세대만의 문화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적어도 자신들의 문학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자평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본 논문은 창작 주체가 보여주는 세대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두 세대의 사유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작된 텍스트를 비교 분석했다. 시간적·공간적 맥락에서 고찰한 결과, 두 세대의 사유방식은 형성 과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세대와의 관계에서 386세대가 기존의 질서를 회의하고 그것에 저항했다면, 지청세대는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부모세대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혁명을 시도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 남겨줄 자기 세대의 혁명 경험을 서사화했다. 386세대는 도시를 중심으로 운동과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도시의 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서사로 분화했다. 반면 지청세대는 향촌에 대한 이상화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향촌에서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들의 서사는 향촌에 대한 감상적인 향수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이 경험한 또 하나의 중국과 전통문화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자원으로 삼아 세계문학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한다.

본 논문의 ‘후일담’으로 첨언하자면, 386세대와 지청세대의 창작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90년대 386세대 작가의 창작경향이 가진 그 나름의 의

52) 박은태, 「1990년대 후일담 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권, 2008년, 337-367쪽.

미와 그림자를 동시에 파악한 비평가는 “새로운 시선변경”을 요청하며 그러한 고민과 노력이 없다면 “후일담문학의 미래란 기껏해야 자책감이나 죄의식 아니면 회한의 낯두리로 함몰하지 않을까”⁵³⁾라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80년대 386세대를 짓누르던 거시적인 억압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사회현실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보다 미시적인 억압으로 분산되어 인권, 노동, 젠더 등 다양한 문제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지청세대 작가들은 중량감 있는 문화계 인사들로 자리 잡았다. 심근문학으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창작했던 모언(莫言)이 201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이들의 ‘세계화’ 전략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386세대는 2017년 정권교체와 함께 속속 정치의 중심부로 돌아오고 있고, 지청 출신들은 중국 정치에서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지청 경력이 자꾸만 언급되는 점이다. 또한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그의 측근들과의 인연 역시 지청 시절로 돌아간다. 당 간부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농촌으로 내려가 인민의 생활을 체험한 시진핑의 이력은 덩샤오핑(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층을 채운 테크노크라트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혁명세대 지도자와 유사한 카리스마와 농민, 인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시진핑 역시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⁵⁴⁾ 향후 중국과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청세대와 386세대의 사유와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는 논리를 세심히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3) 김윤식, 「후일담 문학과 소설가 소설의 넘어서기론」,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년, 599쪽.

54) 中央黨校采訪實錄編輯室 著, 『習近平的七年知青歲月』,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17년. 이 책에서는 시진핑과 함께 지청생활을 한 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인민을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로서의 시진핑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2017년 초판을 찍은 이래 2018년 5월까지 55쇄를 찍었다.

〈參考文獻〉

- 김보경, 「기억은 헤게모니의 욕망에 어떻게 호출되는가 — 후일담 문학과 ‘독학자’의 권력 욕망」, 『당대비평』 28, 2004년.
- 조대엽, 「한국의 사회운동세대, 386」, 『계간 사상』, 2002년 9월.
- 권성우, 「다시, 신세대문학이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 1995년 봄(3월)호(통권87호).
- 박완서, 「60대—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 『역사비평』, 1996년 2월.
- 우상호, 「30대—민주화투쟁과 사회운동의 건인차」, 『역사비평』, 1996년 2월.
- 박은태, 「1990년대 후일담 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권.
- 조혜영, 「지식청년 소재 글쓰기에 나타난 가치관 연구」, 『중어중문학』 34, 2004년 6월.
- 이선옥, 「중국의 80년대 尋根文學 고찰」, 『중국현대문학』, 2004년 9월.
- 임대근, 「중국영화 세대론 비판」, 『중국학연구』 31, 2005년 3월.
- 張承志, 「美文的沙漠」, 『文學評論』 1985년 6기.
- 王安憶, 陳思和, 「兩個69屆初中生的即興對話」, 『上海文學』, 1988년 3기.
- 韓少功, 「尋根群體的條件」, 『上海文化』 2009년 5기.
- 陳建新, 「話語的力量—論當代文學中的知青作家」, 『文藝爭鳴』, 2004년 5기.
- 樊星, 「知青文化論 — 中國知青上山下鄉三十周年祭」, 『文藝評論』, 1998년 6기.
- 頂颯, 「中國社會科學“知青時代”的終結」, 『文化縱橫』, 2015년 6기.
- 카를 만하임 저, 이남석 옮김, 『세대 문제』, 서울, 책세상, 2013년.
- 김현, 『분석과 해석』,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년.
- 모리스 마이스너 저,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서울, 이산, 2004년.
- 원테권 저, 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 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파주, 돌베개, 2013년.
- 이옥연,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의 중국문화』,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년.
- 작가와비평 편,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서울, 여름언덕, 2005년.
- 김윤식, 「후일담 문학과 소설가 소설의 넘어서기론」,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년.
-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년.
- 김영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5년.
- 김인숙, 『당신』, 서울, 솔출판사, 1996년.
- 김인숙, 『그 여자의 자서전』, 파주, 창비, 2005년.
- 공지영,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파주, 창비, 1999년.
- 공지영, 『인간에 대한 예의』, 파주, 창비, 2006년.

-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년.
 김영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년.
 洪子誠, 『中國當代文學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0년.
 查建英 편, 『八十年代: 訪談錄』,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6년.
 北島, 李陀 편, 『七十年代』,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9년.
 韓少功, 『在後臺的後臺』,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8년.
 彭華生, 錢光培 편, 『新時期作家談創作』,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3년.
 戴錦華, 『霧中風景: 中國電影1978~1998』,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唐小兵, 『再解讀』,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년.
 尹昌龍, 『1985: 延伸與轉折』,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8년.
 錢理群, 『毛澤東時代和後毛澤東時代(1949-2009)—另一種歷史書寫』, 臺北, 聯經, 2012년.
 張承志, 『北方的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6년.
 唐達成 편, 『中國新文藝大系1976~1982 短篇小說集』,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1986년.
 江曉天 편, 『中國新文藝大系1976~1982 中篇小說集』,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1985년.
 人民文學出版社編輯部 편, 『豐盈的激情1976~1984』,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9년.
 中央黨校采訪實錄編輯室 著, 『習近平的七年知青歲月』,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17년.

〈Abstract〉

Reading the Literature of the "Post-Revolution" Era
 – The Comparison between the "386" and the "Educated Youth" Generation

Kim, Nam-Hee

Karl Mannheim, the sociologist who spent his youth in the midst of war and revolution and started the groundwork for his sociology of knowledge in the early 20th century, highlighted the collective nature of consciousness. According to him, to think is always to participate in or conspire a collective thinking, rather than just an isolated

activity of an individual. As such, thinking acts as criteria of judgement and action for an individual and characterizes one generation as well.

The “Educated Youth” is a generation that has common experiences and shares collective mind and thinking. They were Red Guard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en were sent-down to rural areas, and later were brought back to cities as a group. So it is logical to suggest that they as one generation feel a sort of solidarity and have some characteristics in common. It is also not by chance that they got together under the banner of the “Root-seeking Literature.”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moti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Root-seeking Literature” and its seeking roots, it is highly required to consider the writers’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related narrative characteristics. This approach will be of use in bringing to light the social context and previously unseen dimensions of the literature.

Based on this hypothesis, this paper compares two well-known literary groups, the “386 Generation” in Korea and the “Educated Youth” writers in China, exploring how each group’s collective historical experience has shaped the vision of the future respectively and how the vision influenced each group’s literary representation. Firstly, this paper will make a diachronic overview of the “Educated Youth” writers and their literature. Then the case of the “Educated Youth” will be compared to the literary production of the “386 Generation” who is also famous for its unique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In doing so, this paper seeks to cast new and revealing light to each generation’s way of thinking.

Key words: generation, educated youth, 386 generation, root-seeking literature, ‘Hu Il Dam’, new generation literature

이 논문은 2019년 4월 25일에 접수되어 2019년 5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5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